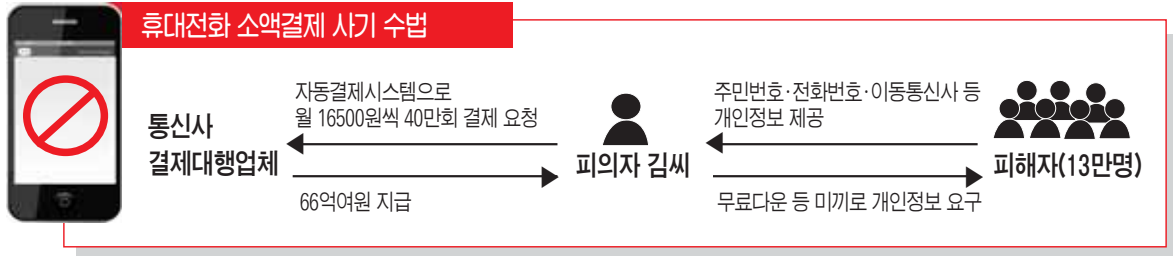


공짜! 믿지마세요

불러 수집한 개인정보를 휴대전화 소액 결제에 활용해 13만여명에 66억원을 가로챈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8일 불법으로 수집한 13만여명의 개인정보를 휴대전화 소액 결제 시스템에 입력, 자동으로 일정 금액을 빼가는 방식으로 66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로 콘텐츠 업체 대표 김모(35)씨와 결제 대행사 영업과장 이모(37)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35)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영화 관련 등 인터넷 사이트 24개를 운영하면서 무료로 회원 가입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13



만3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결제대행사의 휴대전화 소액 결제 시스템에 입력, 매일 1만6500원씩 자동 결제되도록 해 모두 6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최신영화 무료다운', '프로그램 무료다운', '각종 자격증 시험서' 등 있지도 않은 자료를 무료로 받아 줄 수 있다고 현혹해 자신이 운영

하는 사이트로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그는 무료회원 가입을 위해 피해자들이 본인인증 절차에서 입력한 주민번호, 휴대전화 번호, 이용 통신사 등 정보를 이용해 결제대행사의 자동결제 방식을 이용, 40만여 차례에 걸쳐 월정액을 빼간 것으로 조사됐다.

'최신영화 무료다운' 사이트 미끼 휴대전화 소액결제 유도

광주경찰, 13만명에 월 1만6500원씩 66억 챙긴 일당 적발

동결제에 대한 동의를 해야 하지만 김씨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제 시스템 및 콘텐츠 업체의 결제 방식에 대한 감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결제대행사 직원 등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자동 결제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가 하면 자신과 친분이 있는 결제대행사를 소개시켜 주기도 하는 등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최신영화 무료다운, '무제한 다운로드' 등에 속아 자신도 모르게 요금이 결제되는데도 휴대전화 요금내역을 확인하지 않아 피해사실 조차 파악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03분 / 해질 19시 04분 / 달출 1시 56분 / 달몰 13시 56분

가을 맞이 비

전국 대부분 비내리는 가운데 돌풍 부는 곳 있었다.

광주	비	23/29°C
목포	비	24/29°C
여수	비	25/29°C
나주	비	22/29°C
완도	비	25/29°C
구례	비	23/29°C
강진	비	23/29°C
해남	비	24/29°C
장흥	비	23/29°C
순천	비	22/28°C
영광	비	23/28°C
진도	비	24/28°C
전주	비	23/27°C
군산	비	23/27°C
남원	비	22/28°C
홍산도	비	24/28°C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불쾌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5m 1.0~2.5m 위험 보통 높음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1.5m 1.0~2.5m 위험 보통 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1.0~2.0m 목포 07:22 00:37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1.5~2.5m 여수 01:24 08:17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1.0~2.0m 남원 15:20 21:35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30(금)	31(토)	9/1(일)	2(월)	3(화)	4(수)
날씨	☁	☀	☀	☀	☀	☀
최저/최고	23/27	22/28	20/28	19/29	19/29	20/29



이슬먹는 거미 폭염이 물러가고 일교차가 커지기 시작한 28일 아침 무안군 일로읍 한 도로변에 만들어진 이슬 맺힌 거미줄이 성큼 다가온 가을을 실감하게 해준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술자리 폭행' 조선대 이사진

광주시민협 "전원 사퇴하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최근 술자리 폭행사건(광주일보 8월 28일 6면)으로 물의를 빚은 조선대 이사회 이사진의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시민협은 "조선대 이사회가 9명의 이사진 중 빈 한 자리에 대한 신임이사 선출을 놓고 수개월간 다투다가 벌어진 일로 그동안 탐욕과 비리로 얼룩진 조선대 법인 이사회의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시민협은 "8개월째 파행을 겪는 상황에서 임기가 만료된 기존 이사진 모두 연임의사를 밝힌 상태"라며 "이

는 현행 사립학교법 때문에 기존 이사들의 연임이 무한 가능하기 때문이다. 구 재단이 복귀할 수 없도록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하고 운영 문제는 지역사회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협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해 구 재단과 인연이 없고 비리와 전횡을 저지른 적이 없으며 조선대 구성원과 광주 시민사회의 추천을 받은 인물들로 재구성할 것과 이사회의 3분의 1 이상을 반드시 개방 이사로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가족들을 직원 등록·급식비 과다 책정 등

억대 보조금 횡령 어린이집 원장 2명 영장

전남지방경찰청 능동범죄수사대는 28일 가족들을 허위로 어린이집 근무자로 등록하고 일반 급식을 제공하면서 친환경 급식비로 과다 책정해 국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영유아 보육법 위반 등)등으로 화순 A 어린이집 원장 김모(40)씨와 순천 B 어린이집 원장 안모(여·45)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부인(42)과 화순에 어린이집 2곳, 광주 유치원 1곳을 운영하며 어머니(72)와 처제, 처남 등 4명을 교직원이나 운전기사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기록해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국가에서 인건비 보조금 1억 1500여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어린이 급·부식비를 과다 책정하거나 허위로 집행해 거래처로부터 차액 6000여만원을 돌려받는

등 최근 5년 동안 3억7000여만원의 운영비 보조금을 착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순천 한 어린이집 계좌에서 차입금 상환, 특별활동비·인건비 지급 등을 가장해 남편 명의 통장으로 3억여원을 이체해 개인 채무 변제, 차량 구매, 자녀 과외비 지출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어린이집의 허위 보조금 청구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관할 자치단체 담당자들의 직무 유기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서 철거된 친일과 동상, 부산서 건립

안용백 흉상, 2009년 경남고 교정에 설립

광주에서 수십 년간 3·1운동 기념탑과 여계를 나란히 하다가 계속된 문제제기로 철거된 친일과 안용백(1901년~1977년) 동상이 몇 년 전 부산의 한 학교에도 새로 건립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경남 중·고등학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4월 30일 개교기념일이 맞아 학교 동문의 기증으로 안용백 흉상이 교정에 설립됐다.

학교 측은 안용백의 친일 행적에 대해 전혀 몰랐으며 경남 중·고등학교의 초대 교장을 지낸 당시 재학생이었던 재일동포 강주홍(80)씨가 은혜를 기리며 기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원을 관리하던 광주시미미수관 은 유족이나 설립단체의 동의 없이 임의 철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수년째 제기되는 철거논란에 지난 7월 초 동상을 철거했다. /연병뉴스

한빛 2호기 증기발생기 부실 보수 의혹

원전감시단체 주장

한빛(영광) 2호기(95만kW급)의 증기발생기가 부실하게 보수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영광원전 민간 환경·안전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한 달간 진행됐던 한빛 2호기에 대한 제2차 계획예방정비 중 증기발생기 배수관 용접이 애초 계획과 다르게 이뤄졌다는 진정이 제기돼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열을 응집하는 과정에서 용접제로 '인코넬 690'을 써야 했지만 '인코넬 600'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인코넬 690의 경우 용접이 어려운 단점이 있지만, 일단 굳고 나면 '인코넬 600'보다 부식·균열에 강한 장점이 있는 것으로 업계에 알려져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특수작업절차서 등 서류를 검토한 결과 현재까지 작업 과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제보 내용이 구체적인 만큼 진상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4대악 범죄지도' 공개

내년 하반기 전국 지역별로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 지역별로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구역을 표시해주는 범죄지도(생활안전지도)가 공개된다. 안전행정부는 28일 이같은 범죄지도를 포함한 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

템 구축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은 그동안 부처별로 개별 관리되고 있던 재난·교통·생활안전사고·범죄정보 등 다양한 안전정보를 통합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범죄지도에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구역이 안전취약 구역으로 표시된다. /연합뉴스

www.elysia.co.kr

새롭게 태어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새로운 감각으로 탄생한 스페셜 메뉴
행복하고 특별한 모임을 만들어드립니다!

예약문의 엘리시아 예약실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3층) 062)385-3000

Complete View
새롭게 태어난 엘리시아만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구분	평일	주말, 공휴일
성인	23,000 / 27,000	30,000 / 33,000
초등학생	12,000 / 14,000	15,000 / 17,000
유아 (48개월이상)	7,000 / 9,000	10,000 / 12,000

위 금액은 VAT 포함가격입니다. 홈페이지(www.elysia.co.kr)에 회원가입을 하시면 항상 10%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종 할인 이벤트 진행중 (홈페이지 참조)

엘리시아컨벤션 안내 (별관)
고급스러운 분위기연출과 차별화된 음식으로 초대되신 분들을 귀하게 모시겠습니다.

60석 80석 100석
120' 대형 빌드프로젝트 및 음향시설 완비

결혼 피로연 / 각종 세미나 / 워크샵
돌잔치 / 회갑 / 칠순연

이용요금 ₩27,000~₩33,000

Special Service
특별한 모임을 만들어드립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완성되는 곳!
엘리시아 컨벤션 웨딩홀 (나주) ☎ 061-332-1111

- 150여 구호 배정
- 100여 구호 연회장
- 50여 구호 연회장

전국꽃배달서비스 365일 24시간 www.flowerelysia.co.kr
062)513-4000

엘리시아 꽃배달 OPEN기념 이벤트!
꽃, 화분 등 5회 이상 주문시 [5만원 이상] 엘리시아 상품권 5만원권 증정
꽃 + 엘리시아 식사권 묶음 상품 30% 할인판매 "엘리시아 꽃배달" 홈페이지에서 구입가능

나고야
제철음식 일식전문점
엘리시아 협력업체
예약전화(초밥 포장 및 배달가능) ☎ 385-9696
상무병원 응급실 건너편 / 주차장 완비

정식 코스요리	정식 코스요리
참조기탕 12,000원	A코스 40,000원
생우럭탕 12,000원	B코스 50,000원
대구탕 15,000원	C코스 60,000원
생선초밥 12,000원	(1인기준 2인이상)
특초밥 15,000원	주말 가족특선
생선구이 15,000원	4인 한상차림 100,000원
굴비정식 20,000원	(토요일,공휴일에 한함)
나고야정식 25,000원	